



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 관련 양적논문에 대한 체계적 고찰

송주은¹ · 노은하¹ · 박소미²

아주대학교 간호대학¹,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학과²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among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Song, Ju-Eun¹ · Roh, Eun Ha¹ · Park, So Mi²

¹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won

²Department of Nursing, Wonju College of Medicine, Wonj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scribe knowledge status of current research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of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Methods:** Eighteen quantitative current researches published from January, 2006 to August, 2014 that met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These 18 articles finally selected for systemic review from 5,168 articles. All current researches included the mother within one year after childbirth and one variable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at least. **Results:** Variables related to psychological adaptation (48.1%) were mostly studied. In detail, parenting stress (17.3%) and parenting competency (15.4%) were frequently surveyed. Also, social support (7.7%), husband rearing support (5.8%) of relational adaptation, and acculturation (3.8%) of cultural adaptation were importantly studied. In addition, frequently used instruments for each study variable were analyzed and evaluated. As major result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social support or husband rearing support and acculturation, and had an effect on parenting behaviors. Various maternal education programs were effective in improving maternal role confidence or parenting efficacy and decreasing parenting stress. **Conclusio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should focus on decreasing parenting stress and increasing parenting efficacy by improving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level of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Key Words: Immigrants, Adaptation, Mothers, Review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이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

로 이주해 온 외국인 여성 중 국내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의미하며, 이들의 숫자는 현대에 올수록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최근 통계보고에 따르면 총 결혼이민자 수는 281,295명으로, 이중 여성결혼이민자가 235,947명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1],

주요어: 결혼이민여성, 모성적응, 체계적 고찰

Corresponding author: Roh, Eun Ha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164 Worldcup-ro, Yeongtong-gu, Suwon 443-380, Korea.
Tel: +82-31-219-7018, Fax: +82-31-219-7020, E-mail: ek320@naver.com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14R1A1A1007686).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NRF-2014R1A1A1007686).

Received: Jan 27, 2015 / Revised: Mar 17, 2015 / Accepted: Mar 19,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07년 120,713명 보다 195.5% 상승하였다. 이같은 변화와 함께 다문화 가정 출산율이 2008년 1만 3400명에서 2012년 2만 29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1],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인구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은 이미 모성건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출산 후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신체적, 심리적, 관계적, 문화적 측면의 재적응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발달기적 전환의 과정이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과정으로 설명되며, 이는 이민이라는 상황적 전환의 위기가 없고 문화적 스트레스가 없는 자국민에게도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2]. 여성이 모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적인 신생아와의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서[3], 출산이라는 발달기적 위기 뿐 아니라 타 문화로의 이민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적 위기가 가중된 결혼이민여성에게 출산 후 어머니로의 적응과정은 더욱 더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있어 자녀의 출산은 한국생활에의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4]. 그러나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의 83.7%가 한국생활에 대한 문화적, 관계적 적응이 이뤄지기도 전인 1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기 때문에[5], 낯선 문화적 환경 속에서 첫 출산과 더불어 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역할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은 흔히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며[4], 결혼이민 여성에게 나타나는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부도되기’라고 설명하고 있다[6].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인 부모 됨, 즉, 성공적인 모성적응은 현대와 같은 다문화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문화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도 2006년 이후부터 증가하여[7], 본 연구를 위한 문헌검색이 이뤄진 2014년 8월까지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5,000여 편 이상이 출판되었다. 선행연구 분석[7]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논문은 1990년도 후반에 연구들이 출판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 이후부터는 석사학위논문으로, 2010년도 이후부터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연구방법론의 경우도 양적, 질적 논문들 뿐 아니라, 도구 개발 등의 방법론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또한 학문영역에서도 간호학 뿐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여성학 등과 같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한 관심을 받

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그간 출판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간 이뤄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선행논문을 분석해 보면, 문화적응과 문화적 스트레스의 관련요인 규명연구[8-10]와 건강상태 및 의료시설 이용 등의 관련요인 규명연구[11-13]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모성적응 관련변수들을 조사한 연구들은 일부 진행되었으나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하여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모성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심리적 적응(모성역할 자신감, 모성역할 만족감, 모성자존감, 모성정체감, 양육 스트레스 등), 관계적 적응(모아애착, 모아상호작용 등), 인지적 적응(신생아 인식, 신생아 양육지식 등), 행동적 적응(신생아 양육행위, 모유수유 행위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적응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었다[14]. 따라서 이러한 틀을 근간으로 모성적응 관련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출산 후 1년은 모성으로의 적극적인 전환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모성적응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서 설명되고 있다[15]. 그러나 특별히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적응 관련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없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수 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간호학적 관점을 가지고 선행논문을 분석하고, 나아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모성전환 및 적응이 이뤄지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모성적응 관련 개념을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양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색 및 고찰하고, 결과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적극적 모성전환기에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돕고, 나아가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모성적응 관련 주제어 검색을 통하여 분석대상 기준에 적합한 논문을 선정한다.
-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 분석대상 논문에 포함된 측정변수를 분석하고, 변수측정

을 위해 사용된 도구의 이름, 개발자, 신뢰도와 주요 도구의 하부영역을 분석한다.

- 연구의 수준별로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결과를 연구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 용어정의

1) 결혼이민여성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이란 혼인관계로 인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의미한다.

2) 모성적응

모성적응이란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가 되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혹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로서의 임무나 특성, 질 등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대처기전을 사용한 결과로 인해 유발된 일련의 과정 혹은 결과이다[14]. 선행연구[14]에서 모성적응은 크게 어머니로서의 정신적 측면의 적응과 실제적 돌봄 행위와 관련된 행동적 적응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정신적 측면의 적응은 다시 어머니로서의 개인 내적 감정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 모아와 같이 대인관계 내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관계적 적응,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와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 등과 관련된 인지적 적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성적응은 선행연구[14]로부터 도출된 심리적, 관계적, 인지적, 행동적 적응차원과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롭게 도출된 문화적 적응차원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진행되었으며, 국내 데이터베이스로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 base)를, 국외 데이터베이스로는 PubMed와 CINAHL을 통해 출판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대상 논문 포함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판연도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시점으로 보고된 2006년부터 [7] 본 연구논문을 검색한 시기인 2014년 8월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검색어는 ‘Korea Immigrant Women’, ‘결혼이민여성’,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이었으며, 문헌 선정기준으로는 조사된 주요 연구변수가 모성적응의 범주로서 선행연구[14]에서 설명된 심리적 적응(모성역할 자신감, 모성역할 만족감, 모성자존감, 모성정체감, 양육 스트레스 등), 관계적 적응(모아애착, 모아상호작용 등), 인지적 적응(신생아 인식, 신생아 양육지식 등)과 행동적 적응(신생아 양육행위, 모유수유 행위 등)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개념을 하나라도 포함한 논문이면서, 임신, 출산을 경험한 후 1년 이내에 속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한 학위논문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출산 후 1년 동안 어머니로의 적극적인 전환과 적응이 이뤄지는 시기로 보고되기 때문이었다[15].

그러나 추출된 논문 중 한국사회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모성적응의 영역과 관련된 개념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연구, 출산 후 1년 이상의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내용의 전문을 확인할 수 없는 학술대회 초록이나 메타분석 등의 문헌분석 연구, 측정도구 개발 등의 방법론적 연구 등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에 대한 양적논문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논문을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모성적응 관련연구에 대한 이론적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하기 위한 체계적 고찰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문헌검색 전략

문헌검색은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을 활용하여

3. 분석문헌 선택과정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시된 검색어를 통해 문헌을 검색한 후, 분석문헌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선 논문 제목과 초록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및 배제기준을 적용하였다. 초록만으로 문헌 선택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논문의 전문을 일일이 찾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일치되는지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분석논문 선택의 전 과정에서 논문 선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성간호학을 전공하는 두 명의 연구자가 논문 선정 및 제외의 타당성을 논의하며 함께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경우 최종 논문으

로 선택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어를 통해 일차적으로 검색된 문헌은 총 5,168편이었다. 이 중에서 검색된 논문의 제목을 검토하여 모성적응 관련 변수를 다루고 있지 않은 논문 5,034건을 제외하였고,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25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총 109건을 선정하였다. 일차 선정된 논문은 초록을 일일이 검토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거주지가 한국이 아닌 논문 63건과, 방법론이 질적 연구(n=13), 도구개발 연구(n=1), 정책보고서(n=2)나 학술대회 초록만 있고 전문이 게재되지 않은 연구(n=2) 등의 18편을 제외하고 총 28편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전문을 읽으면서, 모성으로의 적극적인 전환과 적응이 이뤄지는 출산 후 1년 이내[15]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논문(10편)을 제외함으로써, 최종 1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4. 문헌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는 Joanna Briggs Institute (JBI)의 질 평가 도구(Critical appraisal checklist for observational studies & experimental studies)[17]를 사용해 비판적 검토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질 평가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선정된 비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서 JBI의 관찰연구를

위한 질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무작위 또는 유사무작위 할당’, ‘대상자 선정기준의 명확성’, ‘객관적 기준에 의한 결과사정’, ‘그룹 간 비교 시 충분한 서술’, ‘적절한 통계적 분석 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예’인 경우 1점을, ‘아니오/불분명함’인 경우 0점을 주었으며, 양적 연구의 체계적 고찰을 위한 문헌선택기준에 대하여 Pearson 등[17]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진실한가(trustworthy)와 관련된 타당성(validity)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며, 총점의 과반수 이상의 점수로 평가되었을 때 체계적 고찰을 위한 연구로서 선정할 수도 있다는 근거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을 체계적 고찰을 위한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실험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서는 JBI의 실험연구를 위한 질 평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무작위 할당’, ‘연구대상자 맹검’, ‘실험자 맹검’, ‘측정자 맹검’, ‘중도탈락자 기술’, ‘각 군의 사전 동질성’, ‘실험처치 외 동일한 조건’, ‘각 군 결과 측정의 동일성’, ‘결과측정방법의 적절성’, ‘사후 대상자수의 적절성’, ‘통계분석의 적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예’인 경우 1점을, ‘아니오/불분명함’인 경우 0점을 주었으며, Pearson 등[17]과 선행연구[14]에서 총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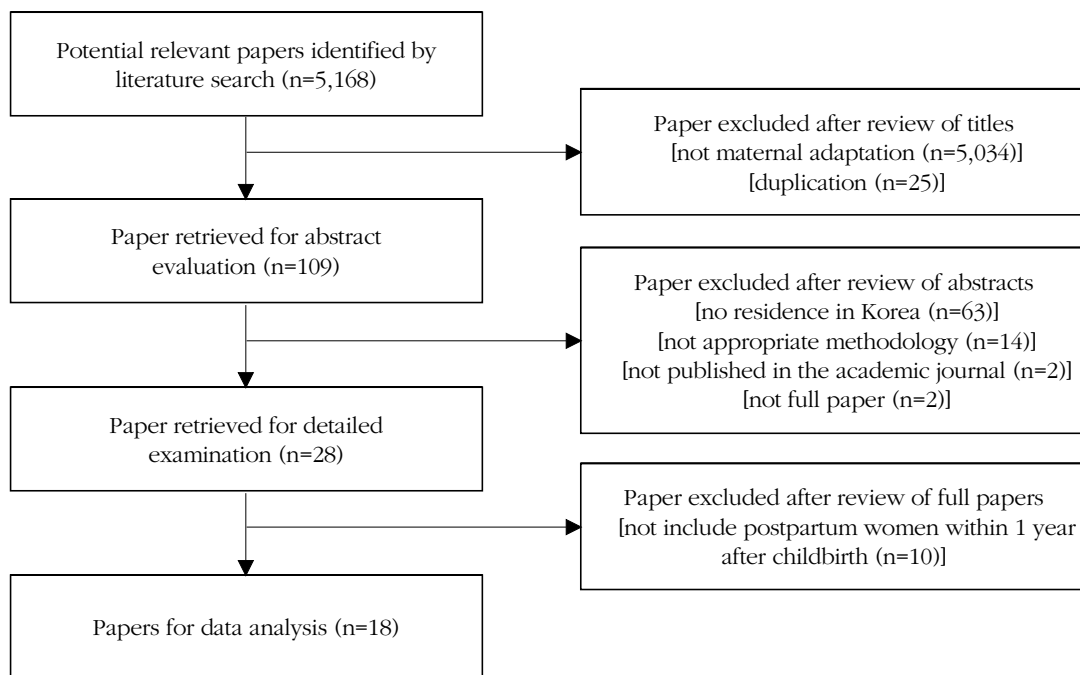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Table 1. Quality Assessment of the Selected Studies

(N=18)

Type of studies	Author [ref No. †]	Item number of critical appraisal form											Total	
		1	2	3	4	5	6	7	8	9	10	11		
Observational Studies	Choi et al. [A1]	0	1	1	1	1								4
	Kim et al. [A2]	0	1	1	1	1								4
	Bae et al. [A3]	0	1	1	1	1								4
	Chung [A4]	0	1	1	1	1								4
	Kim et al. [A5]	0	1	1	1	1								4
	Kim [A6]	0	1	1	1	1								4
	Seo et al. [A7]	0	1	1	1	1								4
	Han [A8]	0	1	1	1	1								4
	Kim & Lee [A9]	0	1	1	1	1								4
	Kim [A10]	0	1	1	1	1								4
	Jeong & Choe [A11]	0	1	1	1	1								4
	Kim [A12]	0	1	1	1	1								4
	Park & Moon [A13]	0	1	1	1	1								4
	Lee [A14]	0	1	1	1	1								4
	Koo & Kim [A15]	0	1	1	1	1								4
Experimental Studies	Lee [A16]	0	0	0	0	0	1	1	1	1	1	1	1	6
	Suh [A17]	0	0	0	0	0	1	1	1	1	1	1	1	6
	Bang et al. [A18]	0	0	0	0	0	1	1	1	1	1	1	1	6

† Reference list is presented in the appendix 1

과반수 이상의 점수로 평가될 때 연구의 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한 바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11점 만점에 6점 이상으로 평가된 논문을 체계적 고찰을 위한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 분석대상 논문의 주요 연구결과는 연구 수준(단순기술 연구, 상관관계 연구, 영향요인 연구, 실험연구) 별로 개별 논문 분석을 한 후, 연구의 주요 결과와 반복되는 요인들을 서술 분석(Narrative analysis)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은 비 실험연구이었으며, 실험연구의 경우도 양적통합이 적절하지 않아 모두 서술적 통합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추출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작성한 분석표를 이용해 변수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이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여 결과를 통합 제시 및 서술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논문발표시기, 논문출처, 학문영역, 연구수준, 이론적 기틀, 대상자 출신국 및 자료수집 장소)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분석대상 논문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는 모성적응의 영역(심리적 적응, 관계적 적응, 행동적 적응, 인지적 적응, 문화적 적응) 별로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측정도구는 도구명과 개발자 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고, 보고된 신뢰도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도구의 하부영역과 문항수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분석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된 양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양적 연구 18편 중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각각 4편(22.2%)이 보고되었고, 논문출처로는 학술저널이 10편(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논문 5편(27.8%), 박사학위논문 3편(16.7%)의 순이었다. 학문영역별로는 간호학이 9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학이 7편(38.9%)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적 연구의 수준에 따른 분석을 하였을 때, 회귀분석이나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성을 분석한 연구가 11편(61.1%)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와 상관관계연구가 각각 3편(16.7%), 그리고, 단순기술연구가 1편(5.6%)이었다. 이론적 기틀적용 여부는 총 18편 중 3편(16.7%)의 연구에서만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이론적 기틀로는 Berry의 ‘문화적응 이해보형’을 사용한 논문이 2편이었고, Mercer의 ‘모성역할획득모형’을 사용한 논문이 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8)

Variables	Categories	n (%)
Publication year	2007	1 (5.6)
	2008	3 (16.7)
	2009	3 (16.7)
	2010	4 (22.2)
	2011	4 (22.2)
	2012	2 (11.1)
	2014	1 (5.6)
The source of article	Journal article	10 (55.6)
	A master's thesis	5 (27.8)
	A doctoral dissertation	3 (16.7)
Major of author	Nursing	9 (50.0)
	Social welfare	7 (38.9)
	Home management	1 (5.6)
	Christian social welfare	1 (5.6)
Research design	Descriptive study	1 (5.6)
	Correlational study	3 (16.7)
	Predictive study	11 (61.1)
	Experimental study	3 (16.7)
Theoretical framework	Berry (2002) Cultural adaptation model	2 (11.1)
	Mercer (1986) Maternal role acquisition model	1 (5.6)
	Not use	15 (83.3)
Mother's nationality	One nation	4 (22.2)
	Multiple nation	14 (77.8)
Data collection setting (n=22) [†]	Community centers	14 (70.0)
	Home	5 (25.0)
	Hospital	1 (5.0)

[†]Including multiple sites for data collection in one study.

편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출신국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일 논문에서 일개 특정국(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4편, 22.2%)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하여 진행한 연구가 많았다(14편, 77.8%). 자료수집 장소는 주로 다문화센터, 결혼이민여성센터, 보건소, 동사무소 내의 다문화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센터가 14편(70.0%)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5편, 25.0%)이나 병원(1편, 5.0%) 등도 있었다.

2. 분석문헌의 측정변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와 측정도구를 분석하기 위한 틀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적응증진 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연구[14]에서 보고된 모성적응의 4가지 영역인 심리적 적응, 관계적 적응, 인지적 적응과 행동적 적응의 4가지 적응영역과,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문화적 적응영역의 분류틀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와의

관계 관련 변수들은 관계적 적응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먼저 18편의 양적 연구에서 모성적응 영역별 측정변수를 분석한 결과, 총 52회의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이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적응영역 관련 변수들이 25번(48.1%) 측정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적응영역(n=14, 26.9%), 행동적 적응영역(n=7, 13.5%), 문화적 적응영역(n=5, 9.6%), 그리고 인지적 적응영역(n=1, 1.9%)의 순으로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이 연구되었다.

이를 다시 모성적응의 하부영역 별로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적응영역에서는 '양육 스트레스'가 9편(17.3%)에서 연구되어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로 나타났으며,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bidin의 Parenting Stress Index (PSI)가 5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로 나타났다. 국내 번안된 도구는 총 22문항이며, 하부영역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인 스트레스(10문항), 부모역할

Table 3. Major Variables and Measurement Tools

(N=52)

Domain	Variables	n (%)	Instrument (Original developer, Year)	n (%)	Cronbach's α
Psychological adaptation	Parenting stress	9 (17.3)	Parenting Stress Index [PSI] (Abidin, 1990)	5 (9.6)	.71~.90
			Parenting Stress Inventory (Kim & Kang, 1997)	3 (5.8)	.78~.84
			Parenting Daily Hassles [PDH] (Cronic & Grennberg, 1990)	1 (1.9)	.97
	Parenting competency	8 (15.4)	Parenting Sense Of Competency [PSOC]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6 (11.5)	.83~.93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Floyd, Gilliom & Costigan, 1998)	1 (1.9)	.83
			Parenting Efficacy Scale (Lee, 2004)	1 (1.9)	.92
	Postpartum depression	3 (5.8)	Edinburgh Postpartum Depression Scale [EPDS] (Cox et al., 1987)	3 (5.8)	.65~.84
	Maternal role confidence	2 (3.8)	Maternal Role Confidence Scale (Pharis, 1978)	2 (3.8)	.85~.92
	Maternal identity	1 (1.9)	Semantic Differential Scale for Myself as Mother (Osgood, 1957)	1 (1.9)	.81~.82
	Maternal self-esteem	1 (1.9)	Maternal Self Report Inventory (Shea & Tronick, 1984)	1 (1.9)	.77
Perceived Life stress	1 (1.9)	Life Stress Inventory (Kim, 2003)	1 (1.9)	.91	
Sub-total	25 (48.1)		25 (48.1)		
Relational adaptation	Social support	4 (7.7)	Social Support Inventory (Park, 1985)	3 (5.8)	.91~.94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Zimet et al., 1988)	1 (1.9)	.91
	Husband rearing support	3 (5.8)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 (Abidin, 1988)	3 (5.8)	.85~.90
	Marital satisfaction	3 (5.8)	Kansas Marital Satisfaction [KMS] (Kansa, 2007)	2 (3.8)	.89~.94
			Marital Satisfaction Scale (Roach et al., 1981)	1 (1.9)	.91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1 (1.9)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Lee, 2000)	1 (1.9)	.80~.86
	Family support	1 (1.9)	Family Support Subscale (Park, 1985)	1 (1.9)	.90
	Husband's rearing participant	1 (1.9)	Parenting Role Satisfaction (Hyun, 1994)	1 (1.9)	.87
Mother-child attachment	1 (1.9)	Mother-child Attachment Scale (Hwang, 2005)	1 (1.9)	.94	
Sub-total	14 (26.9)		14 (26.9)		
Behavioral adaptation	Stress coping style	2 (3.8)	The Ways of Coping Checklist (Folkman & Lazarus, 1984)	2 (3.8)	.80~.92
	Health management behavior for Infant-toddler	2 (3.8)	Scale for Infant-toddler Health Promotion Behavior (Kim et al., 2007)	2 (3.8)	.92~.95
	Parenting behavior	1 (1.9)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Bae et al., 2010)	1 (1.9)	.86
	Breast feeding	1 (1.9)	Empowerment of Breast Feeding (Kim & Park, 2004)	1 (1.9)	.90
	Development of infant	1 (1.9)	Infant's weight, height, the girth of the head & chest	1 (1.9)	-
	Sub-total	7 (13.5)		7 (13.5)	
Cognitive adaptation	Participation in breast feeding education,	1 (1.9)	One item responded by yes or no	1 (1.9)	-
	Sub-total	1 (1.9)		1 (1.9)	
Cultural adaptation	Acculturation	2 (3.8)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SL-ASIA] (Suinn et al., 1992)	2 (3.8)	.81~.88
	Acculturation stress	1 (1.9)	Acculturative Stress Scales for International Students (Sandhu & Asrabadi, 1994)	1 (1.9)	.96
	Type of acculturation	1 (1.9)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Berry, 2001)	1 (1.9)	.89
	Korean language ability	1 (1.9)	Degree of Korean language abil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1 (1.9)	-
	Sub-total	5 (9.6)		5 (9.6)	
Total	52 (100)		52 (100.0)		

수행에 대한 부담감(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적응 영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변수는 '양육효능감'으로 8편(15.4%)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y (PSOC)가 6편의 논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도구로 나타났다. 국내 번안된 도구는 총 9문항이며, 하부영역은 부모인지능력(4문항), 부모신념(3문항), 부모역할 수행(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헌에서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효능감이라고 명명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부모역할효능감 도구로도 PSOC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관계적 적응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4편(7.7%)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로 나타났으며, 측정도구로는 박지원의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가 4편 중 3편에서 사용되었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이며, 하부영역은 정서적 지지(7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 정보적 지지(6문항), 물질적 지지(6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한 종류인 '배우자 양육 지지'가 3편(5.8%)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3편 모두에서 Abidin의 Parenting Alliance Inventory (PAI)(13문항)가 사용되었고, '결혼만족도' 역시 3편(5.8%)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3편 중 2편에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KMS) 도구(13문항)가 사용되었다.

행동적 적응영역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영유아건강관리행위'가 각각 2편(3.8%)에서 연구되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측정도구로는 2편 모두에서 Folkman과 Lazarus의 The Way of Coping Checklist가 사용되었는데, 국내 번안된 도구는 총 44문항이며, 하부영역은 문제 중심적(적극적) 대처방식(21문항), 정서 중심적(소극적) 대처방식(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건강관리행위'의 측정도구로는 2편 모두에서 김신정 등이 개발한 영유아건강증진행위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총 35개 문항이며, 하부영역은 안전영역(6문항), 정서적 지지/노력 영역(7문항), 활동/휴식 영역(4문항), 질병 예방 영역(5문항), 의복 착용 영역(3문항), 영양 영역(5문항), 청결/위생 영역(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적 적응영역에서는 '모유수유 교육여부'가 1편(1.9%)에서 측정되었고, 모유수유 교육여부의 측정을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예/아니오'의 이분형 응답척도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적응영역에서는, 문화적응 변수가 2편(3.8%)에서 연구되었으며, 측정도구로는 2편 모두에서 Suinn 등이 개발한 Suinn-Lew Asian Self Identity Acculturation Scale (SL-ASIA)이 사용되었다. 국내 번안된 도구는 총 18문항이며, 하부영역은 언어(6문항), 정체성(5문항), 친구선별(2

문항), 태도(4문항), 지역적 역사(1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문화적응 스트레스(n=1, 1.9%)와 문화적응유형(n=1, 1.9%) 등의 변수가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과 함께 주요 변수로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한 모성적응 관련 측정변수의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으로 분석되었다.

3. 분석문헌의 주요 연구결과

연구수준 별로 분석문헌을 분류한 결과, 회귀분석 등을 이용한 영향요인연구(n=11, 61.1%)[A5-A15]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상관관계연구(n=3, 16.7%)[A2-A4], 실험연구(n=3, 16.7%)[A16-A18], 단순기술연구(n=1, 5.6%)[A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영향요인 연구의 경우, 주로 심리적 적응영역과 관계적 적응영역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가 11편 중 8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양육 스트레스 또는 양육효능감 등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가 사회적 지지 또는 배우자 양육지지, 결혼만족도 등의 관계적 적응 관련 변수들에 의해 증진됨을 보고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A5-A9, A13], 반대로 결혼만족도와 모아애착 등의 관계적 적응 관련 변수가 각각 양육 스트레스와 모성정체감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에 의해 증진됨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다[A10-A11]. 또한 심리적 적응영역과 문화적 적응영역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도 11편 중 4편이 있었는데, 주로 문화적응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문화적 적응 관련 변수가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등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6, A8, A10, A14]. 그 외 심리적 적응영역의 양육 스트레스가 수동적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행동적 적응영역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 연구도 있었으며[A7, A10] 심리적 적응영역 내의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로서,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한 연구도 있었다[A9].

다음으로, 상관관계연구 3편(16.7%)의 경우는 심리적 적응영역과 행동적 적응영역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가 2편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A3] 그리고 양육효능감과 영유아 건강증진행위 수행 간[A4]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심리적 적응영역 내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A2].

Table 4. Main Results of the Non-experimental Studies (N=18)

Study design	Author [Ref. No]	Theoretical framework	Nationality of population (n)	Data collection setting	Main results	Domains of Adaptation				
						1	2	3	4	5
Descriptive study (n=1, 5.6%)	Choi et al. [A1]	None	-Vietnamese (68) -Korean (67)	Community cent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ostpartum depression level ($r=0.24$, $p=814$) and postpartum depression rate ($\chi^2=1.358$, $p=.507$) between Korean mother and Vietnamese mother.	✓				
Correlational study (n=3, 16.7%)	Kim et al. [A2]	None	-Vietnamese (25) -Filipino (12) -Chinese (11) -Thai (5)	Community cente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iency ($r=-.703$, $p<.001$)	✓				
	Bae et al. [A3]	None	-Vietnamese (81) -Chinese (28) -Filipino (32) -Others (45)	Community center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 rearing practice and parenting efficacy ($r=.157$, $p=.032$)	✓				
	Chung [A4]	None	-Chinese (87) -Korean (91) -Vietnamese (80)	Community center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competency and health management behavior for infant and toddler in Korean ($r=.57$, $p<.001$), Vietnamese ($r=.40$, $p<.001$), and Chinese mother ($r=.42$, $p<.001$).	✓				
Predictive study (n=11, 61.1%)	Kim et al. [A5]	None	-Filipino (83) -Vietnamese (79) -Chinese (42) -Japanese (20)	Home	Parenting stress was affected by social support, in especially emotional support ($\beta=-.409$, $p=.009$), while it was not affected by husband support ($\beta=-.102$, $p=.369$).	✓	✓			
	Kim [A6]	Berry (2002) Cultural adaptation model	-Filipino (83) -Vietnamese (79) -Chinese (42) -Japanese (20)	Home	Parenting efficacy was affected by social support ($\beta=.721$, $p<.001$) and acculturation ($\beta=.222$, $p<.001$) Acculturation was affected by social support ($\beta=.863$, $p<.001$).	✓	✓			
	Seo et al. [A7]	None	-Vietnamese (69)	Community center	Parenting stress was affected by passive stress coping pattern ($\beta=.395$, $p<.01$), marital satisfaction ($\beta=-.257$, $p<.05$) and age of last child ($\beta=.249$, $p<.05$).	✓	✓			
	Han [A8]	None	-Vietnamese (70) -Filipino (49) -Korean Chinese (12) -Others (21)	Community center	Parenting stress was affected by marital satisfaction ($\beta=-.215$, $p<.05$), family relational satisfaction ($\beta=-.214$, $p<.05$), and Korean language ability ($\beta=-.169$, $p<.05$)	✓	✓			
	Kim & Lee [A9]	None	-Filipino (210) -Vietnamese (130) -Chinese (120) -Japanese (50)	Home & community center	Parenting stress was affected by social support ($\beta=-.406$, $p<.001$) and husband support ($\beta=-.244$, $p<.01$). Parenting efficacy was affected by parenting stress ($\beta=-.405$, $p<.001$) and husband support ($\beta=.394$, $p<.001$).	✓	✓			

1=Psychological adaptation, 2=Relational adaptation, 3=Behavioral adaptation, 4=Cognitive adaptation, 5=Cultural adaptation.

Table 4. Main Results of the Non-experimental Studies (Continued) (N=18)

Study design	Author [Ref. No]	Theoretical framework	Nationality of population (n)	Data collection setting	Main results	Domains of adaptation				
						1	2	3	4	5
Predictive study (n=11, 61.1%) (Continued)	Kim [A10]	None	-Vietnamese (110)	Community center	Parenting stress was affected by passive coping style ($\beta=.274, p<.05$) and mother's ethnic origin, in especially, Chinese mother ($\beta=.279, p<.001$), Philippine mother ($\beta=.305, p<.001$), and Mongol mother ($\beta=.220, p<.001$)	✓	✓	✓	✓	✓
			-Filipino (11)			✓	✓	✓	✓	
			-Cambodian (8)			✓	✓	✓	✓	✓
	Jeong & Choe [A11]	None	-Vietnamese (101)	Community center	Maternal child attachment was affected by maternal identity ($\beta=.286, p<.05$)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in especially, middle or high school graduation ($\beta=.271, p<.05$).	✓	✓			
	Kim [A12]	None	-Asian including multi-nations (109)	Community center	Marital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not only emotional support ($\beta=.353, p<.01$), material support ($\beta=.190, p<.05$) of social support but also parent role stress ($\beta=.237, p<.01$) and daily stress ($\beta=.211, p<.01$) of parenting stress.	✓	✓			
Park & Moon [A13]	None	-Chinese, Vietnamese, & Phillino (86)	Community center	Depression was affected by parenting stress ($\beta=.0461, p<.01$) and family support ($\beta=.0269, p<.01$). In addition,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depression were moderated by family support.	✓	✓				
					Lee [A14]	Berry (2002) Cultural adaptation model	-Mongolian (37)	Community center	Parental role efficiency was affected by cultural adaptation stress ($\beta=-0.17, p<.05$).	✓
Koo & Kim [A15]	None	-Vietnamese (125)	Community center	Duration of exclusive breast feeding practice was affected by breast feeding education ($\beta=.493, p<.001$) and family type, in especially, extended family ($\beta=-.197, p=.011$).	✓	✓	✓	✓	✓	
					Lee [A16]	Mercer (1986) Maternal role acquisition model	Experimental (15)	Hospital, home	Maternal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the knowledge about newborn care improved maternal role confidence ($Z=4.50, p=.001$) and decreased parenting stress ($Z=3.36, p=.001$)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control group.	✓
Seo [A17]	None	Experimental (18)	Hospital, community center	Infant-toddler Health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enhanced the parent efficacy ($t=2.398, p=.051$) and infant-toddler health promotion behavior ($t=3.815, p<.001$)	✓	✓	✓	✓	✓	
					Control (22)	Home	Postpartum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enhanced child rearing confidence ($F=16.29, p<.001$) at interaction effect of time and group ($F=5.26, p=.007$), six weeks and three months postpartum.	✓	✓	✓
Bang et al. [A18]	None	Experimental (20)	Home	Interaction effect of time and group ($F=5.26, p=.007$), six weeks and three months postpartum.	✓	✓	✓	✓	✓	
					Control (19)					

1=Psychological adaptation, 2=Relational adaptation, 3=Behavioral adaptation, 4=Cognitive adaptation, 5=Cultural adaptation.

실험연구 3편(16.7%)의 경우는 주로 인지적 적응영역에 대한 중재[A16-A18]와 관계적 적응영역의 지지 중재[A18]가 주로 심리적 적응영역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A16-A18], 영유아 양육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17]. 중재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은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 등을 포함하는 돌보기와 신생아 마사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산 후 3일 이내에 병원의 신생아실에서 첫 교육을 실시하고, 퇴원 후 1주일과 1개월 되는 시점에서 가정방문을 통해 관리와 상담을 제공하였다[A16]. 영유아건강관리교육은 성장발달의 이해, 증상관리,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일 지역사회 내의 교회 교육실에서 총 9회기에 걸친 교육을 진행하였다[A17]. 마지막으로 산후 간호중재 프로그램은 산육기 간호를 포함하여, 신생아와 영아돌보기 교육, 발달촉진을 위한 가정환경 조성과 지지중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출산 후 일주일 이내, 6주와 3개월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중재를 제공하였다[A18].

마지막으로 단순기술연구는 1편(5.6%)으로, 산후우울은 한국여성보다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산후우울의 발생률에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A1].

이상을 요약해 보면, 모성적응 관련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체로 관계적 적응영역의 변수들과 문화적 적응영역의 변수들은 심리적 적응영역의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행동적 적응영역의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9년 간 국내외에 게재된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모성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사회 내 모성적응을 촉진하고, 나아가 이를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모성적응 관련 연구들을 연구의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 연구가 18편 중 11편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체로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 양육지지, 결혼만족도 등의 관계적 적응영역의 변수들과 문화적응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의 문화적 적응영역의 변수들이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

과 같은 심리적 적응영역의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나아가 양육행동 등의 행동적 적응영역의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모성정체감, 양육효능감, 모성역할 수행 자신감 등의 심리적 적응이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 관계 등의 관계적 적응을 통해 강화되고, 어머니로서의 양육행위와 같은 행동적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입장[14]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출산 후 어머니로서의 양육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적응영역의 주요 변수인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혹은 배우자 양육지거나 결혼만족도 등을 증진시키는 지지중재와 함께, 문화적응을 높이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간호중재 등을 적극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모성적응 관련 주요변수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심리적 적응영역($n=25$, 48.1%)이었으며, 측정변수 역시 심리적 적응영역에 속한 ‘양육 스트레스’($n=9$, 17.3%)와 ‘양육효능감’($n=8$, 15.4%)이었다. 이는 국내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자신감을 포함하는 심리적 적응영역의 변수가 가장 많이 연구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로 부터 한국여성 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 역시 부모 됨을 위한 심리적 적응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모성적응의 주요한 지표로서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 등의 변수의 유용성이 설명되었다.

관계적 적응영역은 심리적 적응영역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영역($n=14$, 26.9%)이었으며, 사회적 지지($n=4$, 7.7%), 배우자 양육지지($n=3$, 5.8%), 그리고 결혼만족도($n=3$, 5.8%) 등의 변수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에서 모성적응의 가장 강력한 환경으로서 남편과의 관계나 갈등 관련변수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10, 18].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이 미흡하고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부족한 상태에서 첫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산후조리와 부모되기를 지원해 줄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의 입장[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을 증진시킴에 있어서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의 여건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화적 적응영역($n=5$, 9.6%)은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분석 논문에서 다른 모성적응 영역과 함께 연구된 새로운 적응영역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적응 중

재논문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수행한 연구결과[14]에서 모성 적응을 심리적, 관계적, 행동적, 인지적 적응영역으로 분석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이라고 사료된다. 실제로 결혼이민여성의 83.7%가 결혼이민을 한 후 1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4],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은 문화적응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으며, 문화적응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모성적응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응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문화적 적응영역의 변수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문화적응을 증진시키는 중재는 모성적응 중재전략의 하나로 적극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한 실험연구는 3편으로, 비 실험연구 15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이민자의 모성적응 증진도모를 위한 중재연구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3편의 실험연구의 중재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유인물이나 소책자를 활용하여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이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인지적 중재가 주를 이루었고, 지지체계를 포함한 중재의 적용은 제한적인 실정이었다. 이는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대한 선행연구[14]에서 모성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지적 중재가 흔히 사용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교육매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여성에게는 웹기반의 교육, 비디오를 활용한 교육, 실습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 반면, 결혼이민여성 대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어려움이 교육효과를 낮추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시청각 매체의 개발과 활용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한 최근 연구[19]에서 모성적응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지지적 중재 프로그램이 인지적 중재 프로그램이나, 모아 상호작용증진 프로그램보다도 심리적 모성적응의 중요한 지표인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인지적 중재 이상의 지지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전략의 개발과 적용도 중요하리라 본다. 특별히 결혼이민여성에게 있어서 남편은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함께 참여시키고, 지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중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지적 자원의 하나로서 같은 모국인을 산후도우미나 지

지체계로 교육하여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자국민 시스터(sister) 제도[20]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지지 중재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력을 개발 교육하고,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전문적 돌봄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의 주요 개념에 따른 측정도구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도구명, 개발자와 신뢰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요한 도구의 문항수와 하부영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도구들의 신뢰도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도구 선정에 위한 신뢰도 기준치[21]를 만족하여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를 계획할 때, 본 연구에서 분석, 제시한 도구를 측정도구로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보며, 이는 결혼이민여성 연구를 계획하는 연구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적 연구 18편 중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가장 많은 편수(각 4편, 총44.4%)가 보고되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편, 2012년에는 2편, 그리고 2014년에는 1편의 순으로 논문이 출간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 대상의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향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결과일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를 위하여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모성적응 관련변수를 하나라도 포함한 논문만을 분석논문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로 결혼이민자의 양육 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에 대한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유아나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실정으로, 출산 후 어머니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이뤄지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이다. 그러나 생의 주기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의 시기는 어머니 됨으로의 전환과 적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어려움이 큰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속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논문출처로 학술저널이 10편(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학위논문이 5편(27.8%), 박사학위논문이 3편(16.7%)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양적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별하게 되면서 대다수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박사학위논문이 제외된 것과도 관련된다고 본다.

연구수준 별 논문의 종류를 분석해보면 영향요인연구가 11편(61.1%)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실험연구는 3편(16.7%)으로 부족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hn 등[7]의 선행

연구에서 상관관계연구 41.7%, 기술적 연구 33.3% 라고 보고한 것과 비교할 때, 연구설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시기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매우 어렵고 힘든 전환의 시기이므로, 단지 현상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며, 향후 성공적인 모성전환 및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실험연구가 적극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된 연구들의 학문적 출처의 경우는 간호학이 9편(5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학이 8편(44.4%)이었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선행연구 분석[7]에서 사회복지학이 61.7%를 차지하고 있었던 보고와 비교하여 볼 때, 최근 들어 간호학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성적용 관련 연구가 간호학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간 건강 관련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결혼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사회복지학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이나 서비스 차원에서의 제안과 적용에 관심을 두었다면, 간호학에서는 주로 대상자의 건강 및 삶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성에 근거한 대상자 중심의 연구가 이뤄져 학문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문영역이 소수이기는 하나 가정관리학이나 기독교사회복지학 등에서도 연구논문이 발표된 것을 볼 때, 결혼이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여러 학문의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전문인력을 양산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입장을 고려할 때[22,23], 이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개별적 학문적 접근을 하기 보다는 다학문 간 융합적인 접근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창구의 일원화와 전문인력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 분석결과, 양적 연구 18편 중 단지 3편(16.7%)의 연구에서만 이론적 기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기틀은 연구자의 연구 질문과 목적을 어떻게 탐색하고 무엇을 탐색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연구진행을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24]. 또한 동일한 연구 주제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론적 기틀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지향과 견해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25],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론적 기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모성적용 관련 주제를 연구할 때 적절한 이론적 기틀을 선택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히 결혼이민자의 모성전환과 적응은 문화적응과 어

머니 됨의 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생각할 때, 선행 이론적 기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연구를 위한 이론적 지식체 개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대상자의 출신국을 분석한 결과, 일개 특정국(필리핀) 출신을 대상으로 한 논문(4편, 22.2%) 보다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는데(14편, 77.8%), 이는 출신국 각자가 가진 문화적 배경이나 맥락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특별히 출산과 모성적용이라는 현상은 문화적 신념이나 특성이 매우 다를 수 있는 현상이므로, 외국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다국 출신의 대상자를 함께 묶어 연구하기 보다는 나라마다의 문화적 배경과 모성적용에 관련된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족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민족적 배경에 따른 모성기대나 가치, 돌봄 등의 문화적 신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증진을 위한 질적 연구와 함께, 이를 고려한 맞춤형 간호중재 개발의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제한적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국, 내외 문헌 중 선정 및 제외기준을 만족하는 문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출판논문의 편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적극적인 모성전환의 이행기이자 적응기로서 설명되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결혼이민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모성적용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고찰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모성적용 현상에 대한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문화적 적응의 측면을 모성적용의 한 측면으로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국사회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성적용 관련 양적 연구를 검색하고 질 평가한 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모성적용 영역 중에서는 심리적 적응영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 양육지지와 같은 관계적 적응영역의 변수와 문화적응 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문화적응 적응영역 관련 변수들은 심리적 적응영역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양육행동 등의 행동적 적응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

여성의 모성적응 관련 주요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는 도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용된 도구들이 한국사회 결혼이민 여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 도구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결혼이민자의 모성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나 양육효능감의 증진을 모색하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나 자국민 시스터 제도 등과 같은 비전문가에 의한 사회적 지지 증진뿐 아니라, 전문인력에 의한 사회적 지지 증진 전략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때 문화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되,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적 배경이나 신념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모성적응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설명된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에 포함된 모성적응 관련 변수들 간의 직, 간접 효과와 경로의 유의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연구를 제안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Republic of Korea. Multicultural population statistics [Internet]. Seoul: Ministry of Education-Republic of Korea; 2014 [cited 2014 October 15].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32229
2. Song JE, Park BL. The changing pattern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and maternal adjustment between primiparas who used and those who did not use sanhujori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4):503-514.
3. Mercer RT.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4;36(3):226-232.
4. Chio NY, Woo HK, Jung HS, Park HJ, Yi SH.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09;27(2):255-268.
5.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roductive survey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et].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cited 2009 February 17]. Available from: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 AG=00&CONT_SEQ=205141&page=1
6.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Multicultural family infant-toddler support 2011 [Internet]. Gyeonggi: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2012 [cited 2014 October 15]. Available from: http://www.gfwri.kr/2013_homepage/information/data.php
7. Ahn OH, Jeon MS, Hwang YY, Kim KA, Youn MS. An analysis of articl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related to health.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2010;35(2):134-150.
8. Kim YS, Park JY. Experience of acculturat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2010;30:269-297.
9. Lee SH, Lee YJ, Kim SY, Kim SJ.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9;39(6):899-910.
10. Hyun KJ, Kim YS.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rect and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2;17(4):653-677.
11. Kim CM, Park MS, Kim EM. Married immigrant women's utilization of health care and needs of health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1;22(3):333-341.
12. Ahn YH.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of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8;22(1):18-26.
13. Yang SJ. Health behaviors and related factors among Asian immigrant women in Korea by ethnic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11;22(1):66-74.
14. Song JE, Ahn JA.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in Korea: Systematic review.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3;19(3):129-141.
15. Nyström K, Ohrling K. Parenthood experiences during the child's first year: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4;46(3):319-330.
16. Article 2 (Definitions) Act 3.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nternet]. Gyeonggi: Ministry of Justice; 2009 [cited 2014 October 15]. Available from: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702&strWrtNo=549&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401010&strOrgGbnCd=100000.
17. Pearson A, Field J, Jordan Z.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and health care: Assimilating research, experience and expertise. Oxford: Blackwell; 2007. 80 p.
18. Oh KS, Chung HJ. Relationship of marital conflict with acculturation stress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12;17(3):153-171.
19. Song JE, Kim T, Ahn JA. A systematic review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women with postpartum stress.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Forthcoming 2015 March/April.
20. Kim EH, Lee E, Kim MJ, Park DY, Lee SH. Effects of an educational program of pregnancy and delivery on pregnancy related knowledge, newborn care knowledge, and postpartum

- care self-efficac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1):78-87.
21. DeVellis RF.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NY: Sage Publications; 2012. 109 p.
22. Nho MH. *A study on child rearing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9.
23. Lee YA. *A study on the difficulties and expectations in married life and child-rearing experienc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Le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2;16(5):435-457.
24. Tong A, Sainsbury P, Craig J.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COREQ): A 32-item checklist for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2007;19(6):349-357.
25. Lee EJ, Song JE, Kim M, Kim S, Jun EM, Ahn S, et al. Analysis on reports of qualitative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2;18(4):321-332.

Appendix: The list of the Selected Articles

- A1. Choi EY, Kee EH, Chio JS, Chio SH.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stpartum depression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1):39-51.
- A2. Kim JH, Oh JA, Yoon CM, Lee JH.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aring experiences includi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09;12(1):46-60.
- A3. Bae KE, Lee KH, Kim YH, Kim S, Kim HK, Kim JH. Child-rearing practices and parenting efficacy of marriage-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2010;16(3):175-183.
- A4. Chung SJ. *The parenting efficacy and the health-promoting behaviors for the infants and toddlers of the mothers from Korean and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 A5. Kim DH, Kim SY, Shin HJ.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Journal of Family and Culture*. 2007; 19(3):53-78.
- A6. Kim DH.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A7. Seo HL, Kim KE, Kim YH. A study of the factors impacting parenting stress of marrie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8;13(3):121-143.
- A8. Han KS. *The main cause which effect to the fostering stress of the female married immigrant [master' thesis]*. Daejeon: Hannam University; 2008.
- A9. Kim DH, Lee JE. The study on path analysis for parenting efficacy of married immigrant women at multi-culture famil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2009; 14(2):77-98.
- A10. Kim JY. *Parenting stress and coping style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master's thesis]*. Ulsan: Ulsan University; 2010.
- A11. Jeong GS, Choe JS. A study of the identify as a mother of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and children's attachment. *Transactional Analysis and Psychosocial Therapy*. 2010;7 (1):47-60.
- A12. Kim HS. *An impact of the nurtur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women marriage immigrants on their marriag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2010.
- A13. Park OI, Moon H. Moderating effect of family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on depression of immigrant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1;17(5):447-453.
- A14. Lee YN. *A study on the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the efficacy of the parental role of immigrant wives [master's thesis]*. Cheonan: Baekseok University; 2011.
- A15. Koo SM, Kim TI. The duration of exclusive breastfeeding practice and its related factors of married immigrant Vietnamese wome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13(4):1672-1683.
- A16. Lee JH. *Effects of the maternal education program for immigrant women on their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parenting stress and on their neonatal growth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University; 2009.
- A17. Seo JH. *Effect of infant-toddler health management education for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2.
- A18. Bang KS, Huh BY, Kwon MK. The effect of a postpartum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immigrant mot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20(1):11-19.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in childbearing population. However, maternal adaptation process after immigration by marriage was reported as very difficult, especially in the first time mother.

■ **What this paper adds?**

Understanding about measurements an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maternal adaptation was improved. In addition, cultural adaptation such as acculturation or acculturation stress was a new domain in the current research of maternal adaptation for women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enhance maternal adaptation of immigrant mother by marriag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consider evaluating acculturation level and mothers' cultural belief, and decreasing parenting stress, and increasing parent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re recommended.